

- 본문 : 에베소서 1장 19~22절
- 제목 : “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”

설교자 : 조경래 담임목사

· 본문 읽기

-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
-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
-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
-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

· 마음의 문을 열며

인생을 살다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면 ‘인간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’라고 생각하곤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‘히어로’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것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어떤 때에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, 어떤 상황에는 속상하고, 마음 아픈 일들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미묘한 편안함에 적응되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어서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런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

1.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압니다. 그래서 바울 사도는 ‘속사람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’ ‘신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’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. 혹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의 눈이 확 뜨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.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

2. 바울사도가 표현하는 “그의 능력”은 결국 ‘하나님의 역사하심’인데, 그 하나님의 능력이 “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” 행하신 구체적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?(엡1:20~22)
3. “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”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을 때 ‘부활의 능력’은 어떤 능력입니까?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미래의 소망으로만 갖고 있습니까? 현재의 능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?(엡1:20)
4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서 “그리스도의 영광”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? ‘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’ 안에 당신은 거하고 있습니까?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?(엡1:21 ; 6:12)

· 삶의 열매를 거두며

5. 성찬식은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. 성찬식을 통해 ‘그리스도의 영광’ 안에 살고 있을 때, 이 시대 흐름속에 있는 Floating Christian(붕 떠 있는 크리스천)이나 SBNR(Spiritual But Not Religious)과 같이 영적이라고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들을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"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"을 내게 이미 주셨음을 확신할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은 무엇이 있습니까?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.

